

전신기병기(Extensive stage)소세포폐암 환자에서 Cisplatin을 근간으로 한 화학요법과 Carboplatin을 근간으로한 화학요법의 효과 비교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서재철*, 고동석, 강동원, 이규승, 김근화, 신경상, 정성수, 김주옥, 김선영

소세포폐암은 보고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발성 폐암의 약 20%를 차지한다. 소세포암은 화학요법에 민감하나 질병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재발률 및 원격전이가 많아 생존기간이 짧고 장기생존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있다. 소세포폐암의 치료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은 화학요법으로 그중에서도 cisplatin 혹은 carboplatin과 etoposide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치료보다 높은 반응이 있다. 이에 저자들은 전신기병기의 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이 두 약제의 화학요법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 서로 비교하고자 1992년 1월1일부터 1997년 12월31일 까지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전신기병기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화학요법을 시행한 43명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환자는 cisplatin을 근간으로 치료받은 환자(1군)가 20명(남19, 여1, 평균연령 61.7세)이었고, carboplatin을 근간으로 치료받은 환자(2군)는 23명(남15, 여8, 평균연령 58.8세)이었으며 두 군간의 활동능력, 1초 노력성 폐활량 등의 차이는 없었다. 원격전이 부위는 1군에서 뇌(6례), 골(5례), 부신(5례), 간(3례), 기타(3례)의 순이었고 2군에서는 골(7례), 간(7례), 부신(4례), 뇌(3례), 기타(6례)의 순이었다.
2. 치료반응은 1군에서 부분관해가 50%(10/20), 무반응이 50%(10/20)였고 2군에서 부분관해가 54.5%(12/22), 무반응이 45.5%(10/22)로 양군간의 반응률의 차이는 없었다.
3. 반응유지기간(response duration)은 1군에서 평균 178.5일 이었고 2군에서 평균 121.4일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4. 경과중 새로운 원격전이가 1군에서는 뇌전이만 3례 있었고 2군에서는 뇌전이 3례, 골전이 3례, 간전이 1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신기병기의 소세포폐암에 있어서 cisplatin과 carboplatin의 효과는 유사하였다.

소세포 폐암에서 MIBI LUNG SPECT와 혈청내 NSE, LDH, CYFRA21-1의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의 예측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핵의학 교실[§]

박창민*, 고경행, 임명수, 김유일, 강유호, 임성철, 김영철, 범희승[§], 박경옥

배경 및 목적 : 소세포 폐암에서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의 예측으로 dipyrindamole ^{99m}Tc-MIBI Lung SPECT의 유용성에 대해 보고 한바 있다. 이에 저자들은 기존의 종양표지자인 혈청내 NSE(neuron specific enolase), CYFRA 21-1, LDH(lactate dehydrogenase) 및 LDH₃와 MIBI Lung SPECT와의 상관관계 및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예측정도를 비교하여 가장 유용성 있는 지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6년부터 1998년 5월까지 전남대병원 호흡기 내과에 내원한 환자중 조직학적으로 소세포 폐암으로 확진된 28례(남:여=26:2, 평균연령 59.5±7)를 대상으로 화학요법(3-4주 간격으로 etoposide 80mg/m²와 cisplatin 80mg/m²)을 시행하기 3-7일 이전에 dipyrindamole 투여전후 MIBI SPECT를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혈청내 NSE, LDH 및 LDH₃, CYFRA21-1를 측정하였으며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은 흉부 방사선과 CT 검사에 의해 반응군(완전관해, 부분관해), 무반응군으로 분류하였다. 통계처리는 Pearson 상관분석 및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 완전관해군은 2례, 부분관해는 13례, 무반응군은 13례였으며 반응군과 비반응군에 있어서 dipyrindamole 주사후 MIBI 섭취율의 변화(반응군:0.38±0.64, 비반응군: -0.38±0.50, p=0.002*)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혈청내 NSE(반응군:26.34±35.27, 비반응군: 25.75±29.36 p=0.76), LDH(반응군:586.53,±365.98, 비반응군:837.31±751.90,p=0.29), LDH₃(반응군:20.71±2.32, 비반응군:21.50±5.75, p=0.65), CYFRA 21-1(반응군:6.28±1.052, 비반응군:13.23±23.99, p=0.35)은 반응군과 비반응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DH(p=0.116), LDH₃(p=0.698), CYFRA 21-1(p=0.121), NSE(p=0.509)등은 dipyrindamole 주사후 MIBI 섭취율의 변화와 유의한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결론: Dipyrindamole 주사전후 MIBI섭취율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소세포 폐암에서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으나 기존의 종양표지자들은 예측인자로서 의의가 없었다. 이것은 소세포 폐암에서 MDR gene 및 그와 관련된 단백질이 항암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정도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며 종양 표지자에 대해서는 향후 추적관찰 및 장기 생존율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